

“등유값은 안 잡히나요”... 정부 대책에도 하우스 농민 울상

광주 토마토 재배 농가 가보니... 치솟은 등유값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

“조금씩 떼다 겨우 팔 수 밖에요”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한 지난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방울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류병운(60)씨는 숙절없이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여느 때와 같았더라면 수확기를 앞두고 양 손이 분주했어야 했지만 치솟은 등유값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

조금씩 따다 5kg 한 상자씩 만들어 겨우 팔고 있지만 예전만큼 값이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연료비가 더 들면서 고심이 크다.

토마토는 일정 생육 온도 이상을 맞춰야만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정도로 자라난다.

특히 일교차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비닐하우스 안 온도를 섭씨 10도 안팎으로 유지시켜주며 난방을 때워야 상품성에 지장이 없다.

난방에는 등유가 필수적인데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부족 오른 등유값이 큰 고전거리다.

토마토 비닐하우스 2동과 굴 비닐하우스 2동 등 900평 짜리 비닐하우스 총 4동을 운영 중인 류씨는 그간 등유값으로 매달 100만~1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230여만 원씩을 지출해왔다.

그러나 수확과 출하를 코앞에 두고 난방용 등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넘보기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등유값에 한번에 큰 돈을 쓰기 어렵게 됐다.

등유를 조금씩 떼다 난방을 조금씩 때는 방법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등유 가격이 고공행진인 탓에 언제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방울토마토재배농가에서 농민 류병운(60)씨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시스

까지 버틸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

류씨는 “토마토 가격도 지난해보다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 크다. 5kg 한 박스 수익이 지난해보다 1만원 가까이 감소했다”며 “토마토 수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료비라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농사 전반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광주 북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온 장모(66)씨도 하소연을 이어갔다.

류씨는 “난방용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에는 리터당 970원 수준이었는데 전경으로 벌써 10% 가까이 뛰었다. 세금이 적용되는 실내 등유보다 등락 수준은 달하지

만 대단위로 떼어다 쓰는 농민들에게는 직격타나 다름없다”며 “나프타 수입 문제로 비닐하우스 유지보수 문제도 또다른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 이리다간 농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휘발유나 경유는 정부 정책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등유는 농업이라는 한정적인 수요에 많은 재고를 털어내는 중이라 가격 추이가 오르막길 뿐이다. 이 문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

한 주간 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실내 등유 가격은 이달 초 1345원을 기록하다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둘째주 1574.8원으로 급상승했다.

정부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약 65원 줄어든 리터당 1509원에 형성됐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1901원→1819원, -82원)와 경유(1924원→1815원, -109원)보다 낙폭이 적다.

29일 광주지역 이날기준 휘발유 평균가는 1857원, 경유 평균가는 1850원이다. 실내 등유 평균가는 1566원 가량이다.

/오권철 기자



▲코끼리 모녀의 목욕시간 ▲호광이의 새참시간 ▲동물원 회진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과 사는 남자’ 운영 4~5월 봄철 두달간 사육사·수의사의 ‘동물해설 프로그램’ 마련 동물 복지·건강관리 등 인식개선... 시간·장소 확인 후 현장 참여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봄철 방문객 증가에 따라 사육사와 수의사가 직접 진행하는 우치동물원 동물 해설·교육 프로그램 ‘동물과 사는 남자’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달간 운영한다.

‘동물과 사는 남자’는 동물원의 호랑이, 코끼리, 기린, 낙타, 들소들의 이야기를 남자 사육사들과 수의사들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물해설 프로그램으로, 제목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패러디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각 동물 사육사가 진행하는 ▲기린생태설명회 ▲코끼리 모녀의 목욕시간 ▲호광이의 새참시간 ▲낙타들소 소개시간, 수의사가 진행하는 ▲동물원 회진으로 구성했다.

‘기린생태설명회’는 기린의 행동공학 부하를 위한 사육사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코끼리 모녀의 목욕시간’에서는 코끼리가 물놀이를 하며 사육사와 교감하는 장면을 관람할 수 있다.

‘호광이의 새참시간’은 작년에 실내 동물원에서 구조된 호광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식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낙타들소 소개시간’에는 낙타들소의 행동 생태적 특성을 배울 수 있다.

‘동물원 회진’을 통해서도 수의사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동물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진료 일화(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작년에 생을 마감한 하미를 비롯한 동물의 생을 되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며 뜻깊은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

‘동물과 사는 남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운영일정을 확인한 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동참하면 된다.

우치동물원은 이 프로그램이 동물의 건강관리와 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또, 시민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관람객들이 동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동물원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12·29여객기 참사 잔해물 조사 종료... 공항 외곽 유해 수거 착수

유해 추정물 80점 중 38점 확정·40점 감식 중... 유가족, 공항 담벼락서 유해 직접 발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물 재조사가 11차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 주변에서 직접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곳에 대한 별도의 수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꼬리날개와 수평날개 동체 조사를 끝으로 모든 잔해물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조사에서는 유해나 유류품 등 특별한 추가 물체는 발견

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재조사에서 유해 추정 물체 80점 가운데 38점이 희생자 유해로 확정됐고 2점 비유해, 40점은 감식을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 인근 공항 담벼락 주변을 직접 돌며 유해로 추정되는 뼈 조각 등을 발견하면서 재조사와는 별개로 이후에도 유해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유가족들의 직접적인 수색과 발견이 이어지자 정부도 별도의 수거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과학수사대 등 관련 기관이 공항 외곽과 담벼락 주변을 포함해 약 25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정밀 수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로컬라이저 주변부터 우선 조사할지, 공항 외곽을 먼저 수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정확한 수거 계획 등 세부 일정에 대한 정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가족 10여 명은 지난 15일 사고 현장 인근을 둘러보다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 이 물체들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사고기 잔해

물 재조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외곽을 살펴본 중 발견한 것이다.

현장 주변 항행안전시설 철조망 안팎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해 추정 물체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 추정 물체가 발견된 지점은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 끝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한 뒤 폭발하며 동체가 담벼락과 부딪힌 곳이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로컬라이저와 사고 현장 주변, 담벼락 등에 남아 있는 유해 추정 물체와 잔해물들에 대한 수거 계획을 수립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하루빨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교육청 AI교육원, 초·중학생 AI영재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 AI교육원은 11월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AI영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와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초·중학생 188명이 참여한다.

AI교육원은 지난 28일 대강당에서 학

생과 학부모, 지도강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으며, 30일부터 초등 AI 도전·발전 과정, 중등 IoT·게임·앱개발 프로그래밍 등 10개 과정을 12개 학급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매주 월·화요일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에 AI교육원과 거점학교(장산초·산정초)에서 연간 100시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염선호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